새 세기 태양 누리에 비친다

주체91(2002)년 5월 2일

태양의 초상을 마련하시어

≪구국의 소리≫ 평양특파원 최경수씨 오랜만에 글 보내오셨어요. ≪태양의 초상을 마련하시어≫ 이철씨 낭독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탄생하신 태양절이면 그분에 대한 그리움과 경모의 정이 더욱 뜨겁게 솟구친다.

한번 웃으시면 사람들의 마음을 화창한 봄날처럼 환해지게 하시는 주석님의 태양과 같은 미소...

금수산기념궁전 등 온 나라에 모셔진 주석님의 태양상을 우러를 때면 참기 어려웠던 영결의 시각, 백리연도에서 환히 웃으시는 주석님의 모습을 뵈옵던 때의 일이 생생히 떠오른다.

마지막 영결의 그날이 오지말기를 7천만 우리 겨레와 세계 수억만 인류가 얼마나 애타게 바랬던가.

온 겨레, 온 인류가 다시 일어나신 주석님을 뵈옵게 되는 그런 기적이라도 일어나길 빌었다.

그런데 이 어찌된 일인가.

진정 기적이라도 일어난 것이 아닌가.

환히 웃으시는 주석님의 모습이 태양과 같이 확 안겨왔던 것이다.

꿈인가 생시인가.

분명 주석님은 태양과 같이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다가오셨다. 주석님의 생전의 모습을, 그것도 늘 뵈옵던 초상사진이 아니라 제일 밝게 웃으시는 초상을 보게 된 군중들은 놀라움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짐을 금할 수 없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가시지 않으셨다, 어버이수령님은 생전에 계신다, 이것이 흰 목란꽃송이들 속에 싸여 환히 웃고 계시는 주석님의 초상을 뵈옵는 순간 군중이 심장으로 터친 소리없는 탄성, 순간의 기쁨이였다.

전설과도 같이 전해질 그 광경은 환상의 세계도 아니였고 하늘의 조화도 아니였다.

그때부터 민중의 마음속에는 생전의 모습 그대로 태양과 같이 환히 웃으시는 주석님의 모습만이 꽉 자리하게 되었다.

천만의 심장을 일시에 격동시키고 온 강산에 슬픔과 기쁨이 함께 엉킨 눈물의 바다가 쏟아지게 한 그 화폭속에 어떤 사연이 깃들어 있는지 눈물을 머금으며 다시 돌이켜본다.

주석님께서 너무도 뜻밖에 서거하신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청천벽력같은 주석님의 서거비보에 온 겨레, 온 인류가 커다란 슬픔과 비애에 잠겨 대성통곡하며 몸부림치고 있을 때 누구보다 상실의 아픔을 안고 계시던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을 부르시어 생전에 가장 밝고 환하게 웃으시는 주석님의 인자하시고 자애로운 모습을 형상하도록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다.

주석님께서 가시는 길을 최상으로 빛내이게 하시려고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는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충의와 고결한 의리심에 일군은 흐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장군님께서는 형상과제를 받아안은 만수대창작사의 한 책임간부를 만나시어 인민들이 수령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형상한 모습을 보면 놀랄 것이며 수령님께서 생존해 계신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최상의 수준으로 형상하도록 또다시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완성된 주석님의 태양상을 보아주신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생존해 계실 때의 모습 그대로 환하게 웃으시는 인상이 강하게 안겨온다고, 잘 형상했다고 치하하셨다.

그러나 장군님께서는 그에 만족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수령님의 초상화를 세계적인 전례를 깨뜨리고 국화인 목란꽃의 흰꽃으로 소담하게 잘 장식하도록, 수령님께서 애용하시던 넥타이와 양복의 색깔과 무늬, 그 특징에 대해서까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면서 더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도록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그분께서는 우리가 수령님께서 생전에 계실때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초상화를 모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3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주석님의 태양상을 완성하게 되었다.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모습을 3일만에 훌륭히 세계적인 대걸작으로 형상한 것은 대단한 기적이라고 높이 치하하셨다.

장군님의 그 충의의 세계는 정녕 끝도 깊이도 없는 무한대한 것이다.

장군님께서는 간부들, 창작가들을 둘러보시며 영결식때 환하게 웃으시는 수령님의 초상화를 텔레비전방송으로 공개하면 세계에 큰 파문을 일으킬 것이라고, 인민들이 환하게 웃으시는 수령님의 초상화를 보면 한없이 인자하신 수령님을 직접 뵈옵는 것같아 놀랄 것이며 대단히 좋아할 것이라고,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다.

돌이켜보면 인류사에는 기억에 남는 위인들의 초상이 적지 않지만 **김일성**주석님같이 자애롭고 인자하시고 거룩하신 영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석님과의 영결식을 하루앞둔 전날에도 주석님의 태양상을 또다시 보아주시고 확실히 잘 되었다고, 대단한 걸작이며 명작이라고 거듭 치하해주셨다.

언제나 민중들과 함께 계시는 것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주석님의 한평생의 염원이었다.

주석님께서는 민중들속에 들어가시어 민중들과 담화하시고 민중의 커가는 기쁨을 보실때 제일 밝게 웃으셨다. 주석님께서 민중들속에 계시고 민중의 사랑을 받고 계실때 제일 환하게 웃으셨다.

주석님께서는 마지막 유훈교시에서도 자신께서는 언제나 민중들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바로 주석님의 그 생전의 염원을 가장 깊이 헤아리시고 주석님의 자애로운 모습 가운데서도 제일 밝게, 제일 환하게 웃으시는 태양상을 마련하신 것이다.

장군님께서 태양의 미소를 지으신 주석님의 모습을 영결의 시각에 모시도록 해주심으로써 민중의 마음속에 주석님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신념이 억척같이 뿌리내리게 되었다.

그와 함께 태양이 다시 솟아 오른 것과 같은 꿈아닌 현실이 펼쳐짐으로 해서 언제나 민중들과 함께 계시려는 주석님의 염원이 영원한 것으로 실현되게 되었다.

김일성주석님은 오늘도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영원한 태양의 모습으로 방문객들을 만나주시면서 심장의 얘기를 나누시며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고 민중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어 강성대국건설에로 힘있게 떠밀어주고 계신다.

주석님은 영원한 태양의 미소로 7천만 겨레를 위대한 품에 안으시고 조국통일성업에로 이끌어주고 계신다.

평양에 계신 최경수특파원 좋은 글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사는 민족의 어버이 **김일성**주석님의 태양상,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석님의 위대하고 한없이 자애로운 모습인데요.

최경수특파원 글을 통해 **김일성**주석님을 모시는 장군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와 다심하고 인자하신 인품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7일~28일

새 세기 태양 누리에 비친다

태양의 초상을 마련하시어
김일성주의 구성체계의 독창성
만수대 대기념비에 깃든 이야기
참된 삶의 길을 밝혀주는 위인의 명언
수령복이 있으면
인민복도 생기는 법이다

김일성주의 구성체계의 독창성

주체사상은 새 세기를 밝히는 불멸의 횃불로, 지구를 움직이는 지렛대로, 역사를 전진시키는 기관차로 불리우고 있고 그 희한한 세계는 지구촌 곳곳에 수많이 양산되고 있는데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1974년 2월 19일에 발표하신 불후의 명저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에서 **김일성**주의는 한마디로 말하여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체계라고 정식화하셨습니다.

이 간명한 명제는 **김일성**주의의 진수와 내용, 그 구성과 결합방식을 함축해 심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주체사상이 선행 노동자계급의 사상과 구별되는 본질적 특성을 묵시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오일씨 모시고 위대한 **김일성**주의 구성체계의 독창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오 일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오늘 세계 진보적 인류는 21세기는 **김정일**세기이다, 21세기는 **김정일**영도자님을 인류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위대한 **김일성**주의를 구현해나가는 세기이다라고 하면서 21세기를 인류의 세기적 숙원이 실현되는 휘황한 미래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우리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도 자주시대의 향도이념인 위대한 **김일성**주의의 기치따라 자주, 민주, 통일운동에 과감히 분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민족과 인류가 나갈 진로를 밝혀주는 시대의 향도이념인 위대한 **김일성**주의의 구성체계의 독창성에 관해서 얘기 나누어봤으면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오 일 : 그렇게 하죠. 아시는 것처럼 **김일성**주의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변혁사상을 정식화하시고 발전풍부화시키킨 우리 시대 위대한 향도이념인데요.

김일성주의는 자기의 고유한 구성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사상이론에서의 구성체계는 내용에 의해 규제되며 내용의 과학성, 진보성, 경향성은 구성체계를 통해서 표출된다고 말을 하는데요. 구성체계는 사상이론의 내용에 대한 과학성, 진보성, 경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입니다. 때문에 어떤 구성체계를 갖고 있는가 하는건 단순히 사상이론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하는 문제로만 되는게 아니라 사상이론을 전반적으로 특징짓는 원칙적인 문제로 됩니다.

사회자 : 옳은 말씀인데요. **김일성**주의구성체계는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으로 이루어진 3대 구성체계가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김일성**주의구성체계는 주체사상, 주체의 변혁이론, 주체의 영도방법으로 이루어진 구성체계라고 말할 수 있죠.

오 일 : 그래요. **김일성**주의의 모든 원리와 명제, 풍부하고 다방면적이며 심오한 사상이론적 내용들은 주체사상, 변혁이론, 영도방법에 정연하게 집대성되어 있는데요.

김일성주의에서 주체사상, 변혁이론, 영도방법은 각각 **김일성**주의의 원리와 내용들을 고유한 방식으로 나누어 체계화하고 있는 것으로써 독자적인 자리를 차지하면서 상호밀접히 결합되어 하나의 전일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어요.

사회자 : 그러면 얘기를 좀더 진전시켜서 주체사상과 주체의 변혁이론, 주체의 영도방법으로 이루어진 **김일성**주의의 구성체계의 독창성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고찰해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오 일 : 저는 **김일성**주의구성체계의 독창성을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독창성은 무엇보다 먼저 노동자계급의 변혁사상발전에서 처음으로 나온 구성체계라는데 있다고 봅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 **≪김일성주의는 내용으로보나 구성으로보나 맑스-레닌주의의 틀안에서 해석할 수 없는 독창적인 사상입니다.≫**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김일성**주의는 구성체계에서 선행 노동자계급의 변혁사상과 근본적으로 구별됩니다.

사회자 : 선행한 마르크스주의는 철학, 정치경제학, 과학적 사회주의이론의 3대 구성부분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 일 : 그렇죠. 마르크스주의철학은 유물변증법과 그걸 사회역사연구에 적용해서 나온 유물사관을 포괄하는데요. 유물변증법과 유물사관은 마르크스주의세계관적 기초로 되고 있죠.

마르크스주의의 정치경제학도 잉여가치설과 노동가치설을 과학적으로 밝히고 자본과 노동과의 관계가 유물론적 토대위에서 밝혀진 걸로 해서 마르크스주의구성에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죠. 마르크스주의의 과학적 사회주의이론은 유물사관의 원리를 구현해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필연적 이행과 관련한 이론실천적 문제들을 밝힌 걸로 해서 마르크스주의의 필수적 구성부문입니다.

이처럼 마르크스주의는 철학, 정치경제학, 과학적 사회주의의 3가지 구성부분으로 되어 있고 그 구성체계에 따라 노동자계급의 변혁사상을 전개했습니다.

사회자 : 그렇지만 **김일성**주의는 오늘의 주체시대의 변혁실천의 요구에 걸맞게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3대구성을 이룬 변혁사상인걸로 해서 마르크스주의구성체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김일성주의가 선행한 노동자계급의 변혁사상의 구성체계와 달리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체계로 이루어지게 된 건 그 사상이론적 기초와 역사적 사명과 관련됐잖아요.

오 일 : **김일성**주의는 주체사상을 진수로, 사상이론적 기초로 해서 전개되고 체계화된 변혁인만큼 **김일성**주의구성체계는 주체사상의 구성체계에 원천을 두고 있습니다. **김일성**주의 독창성은 바로 주체사상의 구성체계, 독창성에 의해 규정됩니다. 그리고 **김일성**주의는 역사의 새 시대, 주체시대,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변혁투쟁을 승리적으로 향도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지니고 있는데요. **김일성**주의가 이 역사적 사명을 다하자면 민중에게 세계에서 차지하는 주인으로써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주고 주체적인 관점과 태도를 주며 변혁의 원리와 방법을 밝혀줄 뿐 아니라 그들이 변혁투쟁의 주인으로써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지침을 주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여건으로해서 **김일성**주의는 필연적으로 주체사상과 주체의 변혁이론, 주체의 영도방법, 3대구성을 갖게 된겁니다.

사회자 : **김일성**주의는 자기의 고유한 사상이론적 원천과 역사적 사명으로해서 선행한 노동자계급사상과 다른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새로운 구성체계를 가지게 됐다 이 말씀이죠. **김일성**주의의 3대 구성체계의 독창성은 다음으로 완전무결한 전일성을 갖고 있는데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오 일 : 구성체계의 전일성은 사상이론의 전일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인데요. 구성체계가 정연하게 되려면 그 구성내용들이 과학적 기초위에서 맺어져야 하며 사상이론이 추구하는 목적이 또한 명백해야 하죠.

사회자 :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김일성**주의의 구성체계는 매 구성부분들의 연관기초가 가장 과학적이고 그 사상이론이 추구하는 목적도 명백하잖아요.

오 일 : **김일성**주의의 3가지 구성부분들은 과학적인 주체의 세계관에 기초해서 정연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김일성**주의에서 주체의 세계관은 그 매 구성부분들의 내용을 하나로 일괄시켜주는 기초인 동시에 구성부분들 상호간에 전일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기초입니다.

김일성주의 구성부분들은 민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목적에 걸맞게 체계화됐어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주체사상, 변혁이론, 영도방법의 내용들 자체가 민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데 지향돼 있을 뿐 아니라 **김일성**주의체계안에서 그것들의 연결도 민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사상, 이론, 방법의 순차로 되게 됐습니다.

사회자 :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김일성**주의의 3대구성체계의 독창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가장 변혁적인 체계라는데 있잖아요.

오 일 : 사상이론의 구성체계가 변혁적인 체계로 되려면 그것이 사상과 지식, 이론과 실천의 통일을 확고히 보장해주는 걸로 돼야 합니다. **김일성**주의구성체계는 단순히 지식이론을 주는 체계, 상호구별되는 과학들로 이루어진 학술적인 체계인 것이 아니라 모든 원리와 명제들을 과학적으로, 학술적으로 밝히면서도 사람들에게 세계관을 주고 행동의 지침을 주는 원칙에서 이루어진 체계입니다.

또한 **김일성**주의는 매 구성부분들 자체의 체계가 대상의 합법칙성과 사람의 실천활동원칙을 다같이 밝히는 견지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과 함께 **김일성**주의전반이 사람들에게 사상과 지식을 줄 뿐 아니라 그 시행방도까지 밝히는 원칙에서 체계화됐습니다. **김일성**주의구성체계가 민중의 자주성실현의 견지에서 사상과 지식, 이론과 실천의 통일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한다는 여기에 그것이 가장 변혁적인 체계로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김일성**주의의 구성체계의 독창성에 관해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오늘 세계 진보적 인류와 우리 민중은 실천투쟁을 통해서 세계 자주화위업과 ≪한국≫사회변혁운동을 승리에로 이끌어줄 향도이념은 **김일성**주의밖에 없다는 걸 깊이 인식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인류가 나갈 진로를 밝혀주는 시대의 향도이념인 위대한 **김일성**주의를 자신들의 심장속에 깊이 새기고 그걸 실천하기 위한 투쟁에 열과 성을 다바쳐 나가야 할줄 압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 일 : 감사합니다.

대담 - 구국의 소리
주체 91, 4월 27일~28일

만수대 대기념비에 깃든 이야기

요즘 평양에서 방영하는 TV프로들을 보면 민족최대의 명절인 김일성주석님께서 탄생하신 4월의 태양절에 즈음해 세계 수많은 민중들이 주석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을 안고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주석님의 동상을 찾아 경건히 인사드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윤정원씨 나와주셨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만수대 대기념비건립에 깃든 사연 듣고싶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죠.
윤정원 : 거기에는 참으로 뜨거운 사연이 깃들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만수대 대기념비는 지금으로부터 30년전인 주석님이 탄생 60돌을 맞이해서 세운 겁니다. 기념비에 대해 간단히 먼저 소개하면요, **김일성**주석님의 동상을 겨레와 인류가 나아갈 자주의 길을 밝히시고 그 승리에로 영도하시는 훌륭한 모습을 형상을 했어요. 그래서 주석님의 동상을 평양의 중심부인 아름다운 만수대언덕위에 높이 모셔져 있습니다. 동상 좌우에는 깃발을 축으로 한 군상들이 있는데 그 높이는 26.7미터, 길이가 5천미터, 총연장길이는 200미터예요. 동상의 오른쪽 군상은 주석님께서 조직영도하신 항일무장투쟁과 그 빛나는 업적을 형상하고 있고 왼쪽 군상은 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영도밑에 이북 민중이 이룩한 자랑찬 승리와 업적, 남북 민중들과 해외교포들의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모습을 형상하고 있어요. 또 동상뒤에는 조선혁명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는데 박물관에는 **김일성**주석님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사료들과 투쟁화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사회자 : 만수대 대기념비는 **김정일**장군님의 발기에 의해 건립됐죠.
윤정원 : **김일성**주석님께서 만류하시는 걸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석님을 무한히 흠모하고 따르는 겨레와 세인들의 절절한 심정을 반영을 해서 직접 발기하신 거죠.
사회자 : 주석님의 업적을 만대에 기리 전하며 주석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을 영원히 빛내이시려는 수령님에 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충의와 고결한 도덕의리를 새롭게 하는데요. 주석님께서 만수대 대기념비 건립를 만류하신 이유는 뭘까요.
윤정원 : 주석님께서는 만수대언덕의 그 명당자리를 민중을 위한 노동궁전과 같은 큰 건물을 앉힐 구상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일군들이 **김정일**장군님의 뜻을 헤아리고 동상 등 대기념비적 건축공사를 이미 전에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섰던 거예요. 그런데 주석님께서는 승용차를 타시고 그앞을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알아보게 하셨던 거예요.
사회자 : 좀더 자세히 말씀해주시죠.
윤정원 : 주석님께서 타신 승용차가 만수대언덕을 지나간후 곧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한 간부가 숨바삐 공사현장에 달려나왔는데요. 주석님께서 오늘 아침에 지방 현지지도를 마치고 돌아오시다가 만수대언덕위에 건설을 벌여놓은 것 같은데 그것이 무언가고 알아보라고 하셔서 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책임진 건설일군이 사실대로 말을 해서 주석님께 보고드리게 됐죠. 주석님께서는 노하셔서 인민들에게 집도 다 지어주지 못했는데 그게 무슨 일인가고, 당장 건물을 헐어다 인민들의 집을 짓고 동상을 세우지 말라고 이르셨어요.

주석님께서 만수대언덕에 민중을 위한 건물을 지으실 것을 구상을 하신 건 벌써 오래전부터였는데요. 그러니까 주체58(1969)년 2월 어느날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럽니다. 조선노동당 제5차대회를 앞두고 평양을 더욱 아름답고 웅장하게 꾸릴 구상을 하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평양시 건설총계획화판앞에서 만수대언덕을 가리키시며 앞으로 거기다가 무슨 건물을 앉힐 계획이냐고 물으셨어요. 간부들은 거기에 구조물로 박물관을 짓고 주석님의 동상을 모실 것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대로 말씀드리면 주석님께서 승인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만수대언덕에는 도시형성상 원칙과 요구에 의해 대기념비적 구조물을 하나 앉히려고 한다고 말씀을 올렸어요. 그러자 주석님께서는 그보다는 인민들을 위한 노동궁전과 같은 값진 건물을 앉히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하셨어요. 그러나 간부들은 그곳에 대기념비를 혁명박물관과 함께 건설해야 수도의 중심부를 잘 형상할 수 있다고 말씀을 올렸죠. 그러자 주석님께서는 정 그렇다면 만수대언덕은 평양에서 중심이고 제일 좋은 자리이니 여기에는 민중을 위한 큰 건물을 앉히게 하고 기념구조물은 대성산이나 용악산같은데다 놓자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였습니다.

≪수령님, 그러면 평양시 지형으로 보아 앞이 다 가리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념비는 평양시 어디에서나 다 바라보이는 만수대언덕위에 세우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입니다.≫

한 일군이 다시 이렇게 말씀을 올리자 주석님께서는 인민들의 요구가 정 그렇다면 그런 방향에서 해보라고 하시며 당대회 기념 10대 건물을 확정해주셨어요. 그때 한 간부가 만수대에 놓는 기념구조물도 10대 건물에 놓으면 좋겠다고 말씀올리자 주석님께서는 그건 통일된 다음에 보자고 잘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끝내 성사되지 못했어요.
사회자 : 그렇지만 민중들은 주석님께서 평양시 건설총계획화판을 보아주실 때 만수대혁명박물관과 대기념비를 건립하는 것을 승인해 주신 것으로 알고 주석님의 탄생 60돌때 무조건 건설하자고 막 들고일어나 건설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윤정원 :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사의 책임일군은 공사를 중지하라는 주석님의 말씀을 전달을 했으나 건설자들은 누구하나 일손을 멈추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고쳐 생각하고 사실 그대로 주석님께 말씀을 올렸죠. 허나 주석님께서는 노하신 음성으로 그 설계를 누가 해주었는가, 자신께서 승인도, 지시도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척척 해주었다고 엄하게 꾸짖으셨어요.

≪그런데 인민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석님.≫

일군이 이렇게 간절히 말씀드리자 주석님께서는 ≪인민들의 요구란 말이지.≫라고 혼자 말씀처럼 외우시다가 박물관을 짓느라고 모란봉을 납박하게 눌러놓지는 않았는가고 물으셨죠.

그래서 기초도 많이 낮추고 집도 낮게 지었다고 일군이 말씀올리자 주석님께서는 그러면 평양박물관만 그대로 두고 동상은 그만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군은 다시 주석님의 동상이 모시는 것이 민중들의 기본요구라고 말씀드렸어요.

≪동상이 인민들의 기본요구란 말이지.≫라고 외우시던 주석님께서는 그런데 자신께서는 인민들에게 좋은 집을 다 못 지으셨다고 하시며 박물관앞에 동상 하나만 세우게 했는가고 물으셨죠. 일군이 동상 좌우측에 228명의 전신 조각군상들을 세우게 했다고 말씀올리자 주석님께서는 그렇다면 괜찮다고 하시며 지금 것은 너무 크니 절반쯤으로 하면 좋겠다고 이르셨어요. 일군들은 너무 기뻐 날개라도 돋친듯 한달음에 공사장으로 달려갔죠. 그의 말을 들은 건설자들은 두손을 들고 만세를 부르며 기뻐 어쩔줄 몰라했습니다. 그래서 주석님의 탄생 60돌을 맞으며 만수대언덕위에 주석님의 동상이 높이 모셔지게 됐던 거예요.
사회자 : 주석님의 동상의 좌우에 조각군상들을 세우는 것이 없었더라면 주석님께서는 자신의 동상건립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것만 봐도 **김일성**주석님은 매우 겸허하신 위인이심을 잘알 수 있습니다. 주석님의 동상은 온 세계의 한결같은 지향과 염원에 떠받들려 건립된 것으로 해서 그 어떤 무게로도 잴 수 없는 만년대계의 기념비라고 할 수 있죠.
윤정원 : 그렇죠. 동상이 건립된 이후 이 땅의 한 방북기자가 만수대동상을 보러 갔다고 그곳에 있는 이북의 소년단원들에게 주석님의 동상무게가 얼마냐고 물은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아이가 ≪원수님의 동상은 전체 조선인민의 심장을 합친 무게와 같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서 놀라움과 감동을 금할 수 없었대잖아요.
사회자 : 정말 옳은 대답이죠. 주석님의 동상은 온 겨레의 심장에 떠받들려 세워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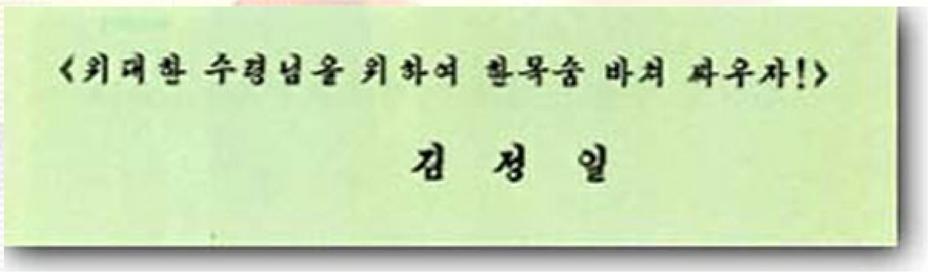
정말 **김일성**주석님은 한평생 민중의 이익을 항상 첫자리에 놓으시고 민중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바치신 민중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고 민중의 의견을 존중하시고 민중의 요구를 수렴하셔서 민중사랑의 정치를 펴시는 민중의 참다운 수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민중도 주석님을 잊지 못해 그리워하는 것이고 주석님의 동상이 모셔진 만수대언덕에로 마음은 끝없이 달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사회자 : 윤정원씨의 얘기를 통해서 **김일성**주석님께서 지니신 겸허하신 풍모를 잘알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절세위인이시고 불세출의 영웅이시고 거룩한 성인이시죠. 주석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인류의 가슴속에 영원히 함께 계실 것입니다.

대담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7일~28일

참된 삶의 길을 밝혀주는 위인의 명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겠습니다만 명언이란 일반적으로 유명하고 훌륭한 말이라는 뜻인데요. 다시말해서 명언은 투쟁과 생활의 진리와 교훈을 간결한 문장에 담아 나타내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역사에는 이름있는 명인들과 문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명언들이 적지 않게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지난 시기의 명언들은 대체로 그 내용에 인간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심오한 철학성이 없는 것으로 해서 완벽하지 못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김정일영도자님의 명언은 그 어느 것이나 다 민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가 정확히 반영되어 있고 그들의 투쟁과 생활의 모든 분야의 내용들이 심오히 담겨져 있으며 누구나 알기 쉬운 말로 함축된 것으로 해서 우리 겨레는 물론 세계 진보적 민중의 커다란 감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 **김정일**영도자님의 명언이 민중에게 참된 삶의 길을 밝혀준다는데 관해서 구체적으로 보죠.

김정일영도자님의 명언이 민중에게 참된 삶을 밝혀주게 되는 건 무엇보다도 거기에 인간의 참된 삶이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심오한 사상과 이론으로 전개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명언에는 우선 인간의 참된 삶이란 사회적 인간의 본성적 요구에 걸맞는 것이라는데 관해 심오한 철학적 기초로 밝혀져 있죠.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내놓으신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간보다 더 존엄있고 값높은 인간은 없다≫는 명언에는 사회적 인간의 본성적 요구에 부응해서 인간의 참된 삶이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깊이있게 반영되어 있죠.

아시는 것처럼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은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본질적 특성인데요. 이로부터 사회적 인간의 본성적 요구를 구현한 인간의 생활은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로 되는 거죠.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은 사람들의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써의 지위를 지키고 주인으로써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사는 생활이고 그들이 창조적 능력을 발양해서 세계를 개조하고 자신을 보다 힘있는 존재로 발전시키면서 자기의 창조적 요구를 실현해나가는 혁신하고 전진하는 생활이죠.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이야말로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사회적 인간의 본성적 요구를 반영한 참다운 생활입니다.

결국 참된 삶이란 본질에 있어서 사회적 인간의 본성적 요구에 걸맞는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이죠. 이처럼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밝혀주신 명언에는 인간의 참다운 삶이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사회적 인간의 본성적 요구를 구현해서 심오한 철학적 깊이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의 명언에는 또한 사회적 인간의 참다운 삶이 사회적 집단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사는 삶이라는데 대해서도 깊이 있고 명철하게 밝혀져 있어요. 사람은 사회와 집단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만큼 생활의 가치는 그가 사회와 집단을 위해 얼마나 이바지하느냐 하는데 따라 평가돼죠. 사회와 집단과 떨어져 자기 개인만을 위해 살다가 죽은 사람은 사회와 집단을 위해 기여하는 것이 없고 남겨놓은 것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한생은 무의미한겁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개인의 향락만을 추구하는 자들은 돈에 울고 돈에 웃기도 하지만 혁명하는 사람들은 집단을 위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는 투쟁에서 보람과 기쁨, 행복과 영예를 찾으며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를 비롯한 유명한 명언들을 내놓으시어 자주시대 인간들의 참된 삶은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데 있다는 참된 삶의 진리를 밝혀주셨어요. 그분의 명언들에는 사회와 집단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삶은 인생의 순간순간을 영웅적으로 값지게 사는 것이며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는 뜻깊은 명언을 비롯해서 사회와 집단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사는 삶의 중요한 내용들이 고전적인 정식화들로 수없이 밝혀져 있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의 위대한 명언에 민중에게 참된 삶의 길을 밝혀주게 된 것은 다음으로 거기에 인간의 참된 삶을 누려나가자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심오한 사상과 이론으로 전개돼 있기 때문이죠.

명언이 사람들에게 참된 삶의 길을 밝혀주기 위해서는 참된 삶이란 어떤 것이냐 하는 것뿐 아니라 그걸 누리기 위한 방도까지도 제시해야 하는 겁니다.

김정일영도자님의 명언에는 우선 사회적 인간의 참된 삶을 누려나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노동자계급의 수령에게 의탁하고 수령이 제기하는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야한다는 걸 심오한 사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수령은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이죠. 때문에 자기 운명을 사회정치적 집단의 운명과 결합시키는 건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인 수령에게 자기 운명을 의탁하는데 귀착되고 사회적 집단에 대한 헌신적 봉사는 곧 사회정치적 집단의 최고뇌수인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김정일영도자님의 명언 ≪수령에 대한 충실성 바로 여기에 인생관의 근본핵이 있으며 삶의 참된 가치도 있고 행복의 척도도 있다≫에는 언제나 수령을 자기 운명의 은인, 마음의 기둥으로 굳게 믿고 평범한 날에나 준엄한 시기에나 오직 수령이 제기한 과제를 훌륭히 수행해 나가는 것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 되며 여기에 참된 삶의 가치도 행복의 척도도 있다는 걸 깊이있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의 명언에는 또한 혁명적 동지애를 귀중히 여기고 높이 발양하는 것이 참된 삶을 누려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로 된다는데 대해서도 밝히고 있어요. ≪혁명동지를 무한히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참된 동지를 얻을 수 있으며 동지의 사랑과 보살핌속에서 영생하는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분의 명언에는 이러한 요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인 만큼 한생을 살아나가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집단과의 관계와 함께 사람들 상호간의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나가야 집단의 사랑과 믿음속에서 사회적 인간으로써의 참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변혁운동에 나선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인간관계는 혁명적 동지애에 있는 겁니다. 혁명적 동지애는 변혁운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주고 받는 사랑이며 그건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운명공동체를 이룬 사회정치적 집단안에서만 참다운 것으로 될 수 있는 겁니다.

김정일영도자님의 명언들에는 바로 이러한 사상과 이론들이 간결하면서도 함축된 표현으로 강조되어 있고 혁명적 동지애를 높이 발양하자면 인간에 대한 참다운 사랑을 지녀야 한다는 것과 혁명적 동지애가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해서 무어져야 한다는데 대해서도 가장 완벽하게 해명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김정일**영도자님은 위대한 명언들로 민중에게 참된 삶의 길을 밝혀주시는 사상이론의 영재이시라는 걸 더욱 가슴 깊이 새기게 되는데요.

한민전의 전위투사들은 **김정일**영도자님과 같으신 사상이론의 대가를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신 자긍심을 폐부에 새기고 그분의 명언들을 자자구구 학습해서 변혁실천에 적극 구현해나가야 할겁니다. 특히 자신들의 참삶을 빛내이는 길이 바로 사회와 집단을 위해 헌신하는데 있음을 깊이 명심하고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성업에 자신의 모든걸 다바쳐 나가야 할줄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설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2일~24일

절세위인의 명언

수령복이 있으면 인민복도 생기는 법이다

김정일영도자님의 이 명언에는 위대한 수령을 모시면 민중도 수령에 대한 충성과 의리를 지닌 민중으로 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수령복은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변혁운동을 하는 민중만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수령복은 민중이 누릴 수 있는 행복 가운데서 최상의 행복이며 최대의 행운입니다.

민중복은 훌륭한 민중을 키워낸 수령의 행복입니다. 수령의 위대성은 민중의 모습에 그대로 반영되며 위대한 수령의 손길아래에서는 훌륭한 민중이 태어나기 마련입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생전에 자신께서는 민중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민중복을 자신이 누리는 3대행복(동지복, 민중복, 후계자복)의 하나로 규정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이북 민중은 수령을 알고 당을 아는 참다운 민중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는 민중복이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온 겨레는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최대의 행운을 지닌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티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수령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시고 그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갈 때 민중의 창창한 미래가 담보되는 겁니다.

한 민족의 위대성은 유구한 역사와 훌륭한 문화전통을 가지고 있거나 영토가 크고 인구수가 많은데 따라 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수령의 현명한 영도를 받는 민족만이 위대한 민족으로 될 수 있습니다. 한 민족의 휘황한 미래도 천리혜안의 선견지명을 지닌 수령의 현명성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겨레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 높이 우러러 모심으로써 위대한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닐 수 있었으며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의 현명한 영도따라 나아감으로써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위대한 민족으로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민전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영광된 민족이라는 자긍심을 안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성업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겁니다.